KiRi Weekly 2016.2.22.

이슈 분석

1인 가구 대상 보험상품 제공 방안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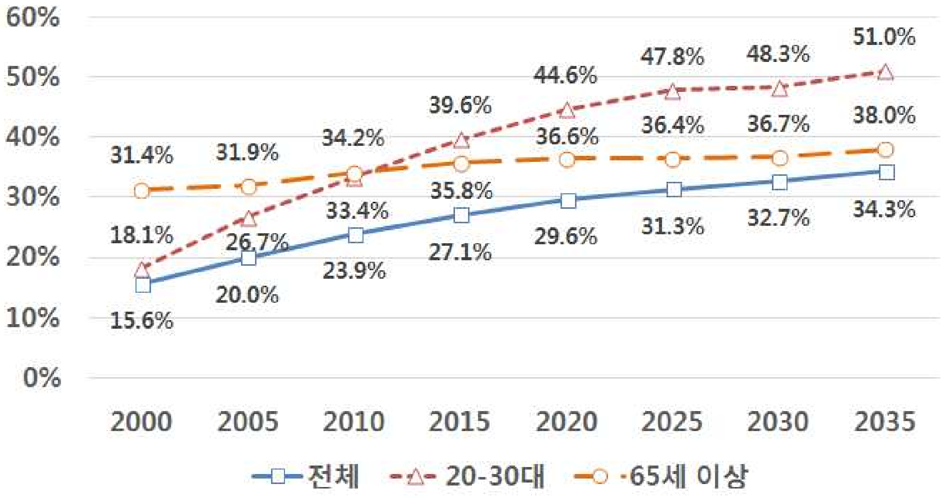
요약

■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20~30대 저연령 1인 가구는 은퇴 후 노후소득에, 고연령은 의료비 및 장기간병 등 예상치 못한 의료지출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 이들의 보험 구매력을 감안한 맞춤형 보험상품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이들에 특화된 보험상품의 개발도 필요함. 이에 보험회사는 확대되는 1인 가구의 보험니즈를 연령, 소득, 성별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적합한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보험상품 측면의 고려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비중은 27.1%로 2005년 20.0%보다 7.1%p 증가하였으며, 2035년에는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1/3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그림 1〉 참조).
- 연령별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연령과 20~30대의 저연령 모두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기준 30%대 후반이지만, 저연령 가구의 1인 가구비중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 가구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본고에서는 1인 가구 중 특히 저연령 1인 가구와 저소득 독거노인,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그림 1〉 1인 가구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

-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월세 위주의 주거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의식주 관련 필수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의료비 지출 발생 시 기초생활조차 어려울 수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9.5%가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는 62.3%, 30대는 48.4%로 젊은층의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1)]
  - 가구유형별 소비구성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식료품 지출 비중이 14.0%로 가장 높은 반면, 1인 가구는 주거지출 비중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남.[2)]
    -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4년 기준 80.5%로 일반가구 73.6%에 비해 높음.
  - 1인 가구의 경우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소득흐름이 단절되거나, 암과 같은 중대질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출이 발생할 경우 주거 안정성과 같은 기초적인 생활 기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저연령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지출 불확실성과 함께 은퇴 후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며, 고연령의 경우 의료비 및 장기간병 등 예상치 못한 의료지출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저연령 1인 가구의 경우 소득흐름을 상실했을 때 가계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니

1)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census.go.kr/.
2) 통계청(2014),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

즈가 클 것으로 보이며,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질병에 대비하여 소득상실을 담보할 수 있는 정액형 건강보험 수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은퇴 이후 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소득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연금 가입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연령 1인 가구의 경우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자 전용 건강보험 가입 수요가 클 것이며, 치매 등의 경우를 대비한 장기간병보험 수요도 있을 것임.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 · 저연령 1인 가구에게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임.

- 현대경제연구원[3]에 따르면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계층 분류상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4]은 45.1%로 전체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18.5%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경우 미래 소비를 위한 연금상품보다는 당장의 소득 및 지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 필요할 것임.
  - 대표적 소득상실 위험인 중대질병 및 상해 치료비와 함께 실직에 따른 생활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상품 제공이 필요함.
- 저소득 1인 가구의 보험구매력은 매우 낮을 것이나 기본적인 보장 수요는 존재할 것이므로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선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5]하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저연령 1인 가구의 온라인 소비 선호를 반영하여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고 저해약환급금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보험료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임.

60대 이상 고연령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에(66.7%)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료가 저렴한 사후(死後)처리 관련 보험 개발도 고려될 수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에 특화된 보험상품도 개발될 수 있음.

- 저소득 · 고연령 1인 가구의 경우 고독사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독거노인의 사망 시 사후처리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집주인의 독거노인 입주 기피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에서 판매 중인 고독사 보험은 독거노인을 세입자로 둔 집주인이나 독거노인 자신이 가입

3) 현대경제연구원(2015), "싱글족(1인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시사점".
4) 저소득층은 균등화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의미함.
5) 일본 AXA가 1인 여성가구를 타겟으로 개발한 "AXA소득보장암보험"을 예로 들 수 있음.

하며 본인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주택보수비용이나 사후처리비용 등을 보상함.6)

- 한편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나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귀중품 도난 등에 대한 보험니즈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니즈에 특화된 상해, 도난보험을 제공할 수 있음.

〈표 1〉 연령, 소득, 성별을 감안한 1인 가구 특화 보험상품

구분	중·고소득	저소득
저연령 1인 가구	정액형 건강보험, 개인연금보험	소득보상 중대질병보험
고연령 1인 가구	고령자 전용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사후처리 관련 보험
여성 1인 가구	상해, 도난보험	

■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은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므로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확대되는 1인 가구의 보험수요에 대응하여 1인 가구의 보험니즈를 연령, 소득, 성별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보험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재의 1인 가구 규모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에 뛰어들 만큼 큰 시장이 아닐 수 있고 이들에게 적합한 보험상품 또한 기존에 개발된 보험상품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들을 위한 사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KiRi

6) 이코노믹리뷰(2015. 12. 9), “일본 ‘고독사보험’ 등장…‘고인 뒷수습·유품정리’ 월 3천 원대”.